

IB 프로그램 운영 협력 확대

전북자치도교육청, 한동대와 IB 인증교사 양성 협약 체결... 교원 전문성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1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남서울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날 한동대학교와 IB 인증교사(IBECE)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IBECE는 IB 교사 자격증을 의미한다. IBECE 프로그램은 IB 교육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고자 하는 교사들을 위한 IB 교사 양성 및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IB 교육을 통해 역량 있고 국제적 소양을 갖춘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사 교육을 제공한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IBECE(1년 비학위과정) 운영 전담 △IBECE(1년 비학위과정)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IBECE(1년 비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다.

이날 협약을 통해 전북교육청은 올해 IBECE 과정 선발자 중 11명(초 9명, 중 2명)의 교사를 양성한다. IBECE 양성과정 중 1년 비학위 과정 등록금을 지원한다.

한동대학은 IB PYP(초등학교 과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한동대학교와 IB 인증교사 양성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MYP(중학교 과정), DP(고등학교 과정)를 모두 양성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대학으로 한국어와 영어 2개 언어로 교육을 진행하며, △IB 교수-학습 접근법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교육과정 설계 △평가 등의 과정을 제공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국내 대학과 연계한 IBECE 양성과정 뿐만 아니라 IB

본부(IBO)와 진행하는 PDX(전문성 강화)를 통해 IB 프로그램에 대한 교원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정은 "IB 프로그램에 대한 전북 교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한동대학교의 전문성이 더해져 역량 있는 전북 IB 인증교사 양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캠페인을 가졌다.

'안전의식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

전북자치도교육청, 30일까지 '안전주간'의 날 운영
서거석 교육감 등 전직원 참여 안전캠페인 가져
오늘 '제10주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5일부터 30일까지 안전주간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한 교육 환경 함께 만들고 나부터 안전한 생활 실천"을 주제로 이 기간 동안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생활 실천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15일 오전 8시부터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안전캠페인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 안전벨트 착용,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음주운전 금지, 화재 및 지진대피 요령 숙지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이와 함께 취약시설 안전점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재난대피대체점 점검, 안전주간 공모전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지진 및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재

난대비대체점 점검 및 재난관리훈련과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소방안전 80개교, 교통안전 9개교)을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16일 오전 10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대강당 및 세월호 추모비 앞에서 제10주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식을 열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학생의 안전"이라며 "전북교육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더불어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중국 상하이박세자동차 직업기술학교, 비전대 방문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논의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15일 중국 상하이박세자동차 직업기술양성학교 이사장 일행이 본교를 방문해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주비전대학교 우병훈 총장, 이효숙 국제교류원장, LIU YONG 중국 상하이박세자동차 직업기술양성학교 이사장, ZHANG ZHENG 교장, 정순택 전북특별자치도 상하이사무소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전주비전대학교는 지난해 9월 중국 상하이박세자동차 직업기술양성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 이번 방문은 양 기관 간의 지속적인 국제교류 협력과 유학생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협약 체결 이후 두 학교는 교육과



15일 중국 상하이박세자동차 직업기술양성학교 이사장 일행이 전주비전대학교를 방문해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특히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이들이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우병훈 총장은 "지나해 체결한 업무협약은 우리 대학과 중국 상하이박세자동차 직업기술양성학교 간의 국제

적 협력의 출발점이었다"며 "오늘 이 자리는 그 협약을 더욱 구체화하고, 양 기관이 직면한 도전과 기회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비전대학교에는 현재 8개 국가 750여 명의 유학생들이 연수과정과 본과과정에 재학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15일 오후 2시 주한키르기스공화국 이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 초청 특강을 가졌다.

'키르기스공화국과의 관계발전'

전북대, 주한키르기스 대사 초청 특강
내달 7일 주한모로코대사 초청 특강도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15일 오후 2시 주한키르기스공화국 이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 초청 특강을 가졌다

이날 이스마일로바 대사는 전북대 뉴실크로드센터 동행홀에서 전북대 구성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키르기스공화국-대한민국 양국의 관계 발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스마일로바 대사는 키르기스공화국 비슈케크 인문대학에서 한국 경제학사를 전공하고, 한국어 교사와 통역사로 활동한 바 있으며, 2015년부터 키르기스공화국 국회 부의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2년 대한민국 대사로 임명돼 키르기스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특강에서 이스마일로바 대사는 키르기스공화국을 이해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와 함께 키르기스공화국의 문화와 양국 간의 관계를 설명했다.

이스마일로바 대사는 "전북대학

의 특강 초청에 감사드리며, 키르기스공화국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이었다"며 "최근 전북대학교와 키르기스공화국 대학 간의 MOU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양국의 교육 협력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는 2002년 오수국립대를 시작으로 키르기스공화국 5개 대학과 왕성하게 교류해오고 있고, 지난해에는 키르기스국립기술대학교 등 2개 대학과 협정을 맺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협력중"이라며 "이러한 협력 관계를 통해 양국 간 동반자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우리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주한키르기스공화국 대사의 특강을 시작으로 5월 7일에는 주한모로코대사의 특강이 예정돼 있다.

/장은성 기자

'법학교육·연구 국제적 위상 확인'

동북아법연구소, 인도 진달글로벌대학과 협력 '물꼬'
국제 공동학술대회 개최 통해 'K-법학' 우수성 선보여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동북아법연구소 가상재법센터(센터장 송문호)는 인도 진달글로벌대학과 국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진달글로벌대학은 2023년 인도 내 QS랭킹 1위의 명문대학으로, 세계 49개국 1,100명의 교수진으로 구성돼 있다.

송문호 센터장을 비롯한 센터 전임 연구원들은 최근 인도 진달글로벌대학을 방문, 4차 산업혁명 첨단 가상경제를 다룬 가상자산, 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한 한국의 관례와 법이론을 소개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전북대와 진달글로벌대학 교수들뿐 아니라 인도 wnov 한국대사관 장우찬 코이카 소장 과 조중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도 발표자 나서 한국과 인도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교류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이날 열린 협정식에서는 송문호 센터장과 진달글로벌대학 라지 쿠마르 부총장이 직접 만나 협약서에 서명했다.

전주교육문화회관, '한 학년 한 책 함께 읽기' 운영

전주교육문화회관(관장 이현규)은 교육과정 내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해 '한 학년 한 책 함께 읽기' 사업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단체대출을 통한 도서 지원, 학교로 찾아가는 작가 강연, 독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도서 단체대출 및 작가강연 등 초·중·고 65개교를 지원할 예정이다.

초등학교는 <너의 운명은> 외 5종,



송문호 센터장은 인도 재법그룹 진달가(家)가 설립한 이 대학의 현황과 비전을 설명하며, 연구교류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학생교류도 활성화되길 희망했다.

또한 호주 국적의 라나드 자아신게 국제처장은 진달글로벌대학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전북대의 학생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희망했다.

송문호 센터장은 "이번 국제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전북대 법학교육과 연구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했다"며 "진달글로벌대학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양 대학간 교육과 연구 발전에 큰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19일까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5~19일 5일간 '2024년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임용시험에서는 교육행정 35명(일반 29, 장애 4, 저소득 2), 전산 3명, 공업 6명(일반기계 2, 일반전기 4), 식품위생 3명, 시설 6명(일반토목 1, 건축 5), 시설관리 19명(일반 16, 보훈부 추천 3), 운전 16명(일반 14, 보훈부 추천 2) 등 7개 직렬에서 8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 사이트(<http://edurecruit.g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취소는 22일까지 가능하다.

필기시험은 6월 22일, 면접시험은 8월 9일 치러지며, 최종합격자는 8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교육청 누리집(<http://www.jbe.go.kr>) '알림마당' 시험/채용/구직) 지방공무원시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기술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2회 임용시험은 8월 26~30일 원서를 접수한다.

/장은성 기자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낙농우유협회 전북지회와 협약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단장 최현영·이하 지원단)이 한국낙농우유협회 전북도지회 후원을 받아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우유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국낙농우유협회 전북도지회(도지회장 이상욱)는 지역아동센터 돌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우유 지원사업을 벌여왔다. 지금까지 576개교 아동 1만5,420명에게 3,672만원 상당의 우유 4만3,200개를 지원했다.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은 최근 한국낙농우유협회 전북도지회와 우유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 지역아동센터 287개교 아동들에게 4월부터 우유를 지원한다.

협약식에는 한국낙농우유협회 전북도지회 이상욱 회장, 전북특별자치도청 축산과 이희선 과장, 축산경영팀 박훈 팀장,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 최현영 단장이 함께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부설초,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참가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신철)는 지난 14일 군산월명종합경기장에서 열린 '2024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군산시와 대한육상연맹이 공동 주최한 이번 마라톤 대회는 아마추어 마라톤러인 김신철 교장의 지도 아래 지난 해부터 준비 기간을 거쳤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은 "아침 달리기 활동을 통해 체력을 키워 10km에 첫 도전했다"며 "달리면서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니 완주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신철 교장은 "이번 마라톤 대회 참가를 통해 학생들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고, 또 꿈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끈기와 노력을 배울 수 있었다"며 "이번 대회가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경험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